

# 일제강점기 문화사 연구에서 ‘팔방미인’의 저주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상길, 『라디오 연극 키네마 : 식민지 지식인 최승일의 삶과  
생각』(이음, 2022)

백두산\*

## 〈차례〉

1. 일제강점기 문화사에서 ‘팔방미인’의 저주를 풀기
2. ‘미디어 사회문화사’와 ‘식민지 인텔리겐치아 전기’로서의 최승일 생애사의 구성
3. 일제강점기 문화사 연구와 작가론의 방향

## 국문초록

『라디오 연극 키네마: 식민지 지식인 최승일의 삶과 생각』은 좌파 문인으로 출발하여 라디오, 영화계에서 활동하였던 최승일의 생애사를 ‘미디어 사회문화사’와 ‘식민지 인텔리겐치아 전기’의 방식을 통해 확장적으로 다룬 연구서이다. 이를 통해 1920-40년대 라디오, 연극, 영화계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문화사의 미세한 정경과 최승일과 근거리에 있었던 일군의 식민지 지식인 집단의 역학이 최승일의 생애사 속에서 포착된다. 서평은 이 책의 장별 주요 논점을 살펴보면서, 일제강점기 대중문화계 전반에 종사하면서도 소위 ‘팔방미인’으로의 폼퓌 속에서 제대로 평가될 수 없었던 ‘매개자’, ‘기획자’의 재조명이라는 일제강점기 문화사 연구의 과제에 이 책이 기여하는 점을 다루었다. 이 책은 ‘다면적 정체성’을 적극적인 해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작가’라는 정체성에 의해 차폐되었던 최승일의 다양한 미디어 실천을 장의 구성과 세부의 해석에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생애사 연구의 방법에 기초하여 전통적 작가론과는 다른 질문을 통해 최승일의 생애사 속에 나타난 ‘집단 안에서의 개인의 의식과 규범’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대 미디어장의 역학과 식민지 인텔리겐치아의 집단적 행동규범, 인식 속에서 최승일의 생애는 입체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접근은 일제강점기 문화사 연구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목된다.

www.kci.go.kr

## 1. 일제강점기 문화사에서 ‘팔방미인’의 저주를 풀기

이상길 선생의 『라디오 연극 키네마 : 식민지 지식인 최승일의 삶과 생각』(이하 『라디오 연극 키네마』)는 발간 이후 일제강점기 한국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책이었다. 부록의 「최승일 산문선」을 제외하고 5장 420여면의 분량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음에도 나 역시 이삼일 만에 책을 읽어냈다. 최승일(崔承一, 1901~1966)은 문학 연구에서는 물론이고, 한국 연극·영화 연구에서도 좀처럼 개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던 인물이다. 이 책은 최승일의 생애사를 따라 일제강점기 미디어 문화의 미세한 정경과 역할을 서술하며, 동시에 김영팔, 안석영 등 식민지 미디어장의 중심에서 활동하였던 문사(文士)들의 집단전기적 서술을 곁들여 1920-40년대 좌파 지식인에서 대중문화계의 중추로 성장한 일군의 지식인 집단의 의식과 활동을 살핀다. 이러한 방식은 이 책의 방법이자 매력이다.

저자의 말을 빌자면, 『라디오 연극 키네마』는 “미시사의 스케일 위에서 수행하는 일종의 미디어 사회문화사”(12면)이다. 이러한 논점은 책의 제목에서부터 드러나 있다. 최승일의 「라디오 스포츠 키네마」(1926)를 패러디한 책의 주제(主題)는 라디오, 연극, 영화의 ‘미디어 사회문화사’라는 초점을 겨냥한다. 동시에 ‘식민지 지식인 최승일의 삶과 생각’이라는 부제(副題)는 신경향파와 카프 활동을 거쳐 다양한 미디어로 거점을 옮기다 일제 말기에 친일의 길에 동원되어버린 일군의 ‘식민지 (인텔리겐치아) 지식인’ 그룹의 집단전기적 성격이 이 책의 중요한 맥락임을 드러내는 듯하다. 일제강점기 지식인 집단이 근대 미디어에 기반한 문화공간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반대로 근대 미디어를 통해 조성된 문화공간은 이 지식인 집단들의 사회적 궤적과 집단적 경험을 구조화하였는지(12면)에 대한 조명은 이 책의 중요한 맥락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특히 일제강점기의 대중문화계 전반에서 활동하였

던 일군의 인물들을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탐색하는 학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이라. 일제강점기 드라마를 연구하면서 나는 윤백남, 이기세, 김운정 등 특정 작품이나 시기 이외로는 드라마 연구에서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각종 문화 기록에서 많은 활동이 보이는, 소위 ‘팔방미인’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았다. 팔방미인(八方美人)이라는 말이 박이부정(博而不精)하다는 평가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은 분과 학문의 체계에서, 식민지 대중매체의 장을 넘나들며 활동하였던 문사의 조명은 전통적인 문학 연구의 방법인 작가론(문학전기, Literary Biography)의 범주에서 온전히 규명되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론의 관점에서 ‘작가의 생애는 작품의 창작과 성취를 둘러싸고 조명되며, 때로는 담론적 관점에서, 때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의 ‘의도’를 유추해내는 작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 생산과는 거리를 둔 듯한 문화기획, 이 책에서는 ‘매개자’나 ‘기획자’의 역할이라 언급하였던 부분은 어떠한 식으로 소화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제강점기 문화사 연구에서 ‘팔방미인’의 저주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글은 『라디오 연극 키네마』의 주요 논점을 살펴보고, 일제강점기 드라마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 책이 주는 두 가지의 자극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이 책이 시도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미디어장에서 활동한 문사 연구의 접근 방식, 그리고 이 책이 시도한 ‘생애사 연구’의 논점과 독특한 질문의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 2. ‘미디어 사회문화사’와 ‘식민지 인텔리겐치아 전기’로서의 최승일 생애사의 구성

문학연구자가 이 책을 읽는다면, 가장 친숙하고도 낯선 장면 1장이 아

널까 싶다. 1장 「신경향파 청년 문사」는 최승일의 가계자료와 자전적 소설 등을 재구성하여 1901년 최승일의 탄생으로부터 가계환경, 유학시절, 극예술협회, 『신청년』 발행, 형설회 순회연극단, 염군사, 경성청년회 등 연극활동의 시작과 사회주의 단체에서의 활동을 다루며, KAPF 가담과 제명의 과정까지를 살피고 있다. 친숙한 면은 ‘작가 연구는 족보부터’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광수와 그의 시대』가 서가에 꽂혀 있는 연구자라면,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최승일 주변의 인물과 가계 환경에 대한 조사와 해석, 그리고 이를 통해 귀납적으로 제시되는 ‘가설’에서 친숙함을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접근의 방식이 살짝 다른 부분 역시 눈에 띄는데, 이 부분에서 생애사 연구의 특수성이 엿보인다.

1장에서는 작품의 해석과 평가 대신(최승일의 소설은 192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최승일 연구의 ‘작업가설’로서 성장환경에 대한 자기서사의 해석, 친족 및 교우관계에 주목한다. ‘작업가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생애사 연구에서 자기서사는 생애의 시기마다 다르게 전개되며 이 차이 자체를 해석의 대상으로 보기에 그렇다. 책에서는 「콩나물죽과 소설」(『별건곤』, 1927.03)과 박영희의 증언을 교차로 살피며 최승일이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가문 태생의 장남이자, 신식 교육을 받은 고학력자 남성”(21면)으로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장남으로의 운명과 이런 일 저런 일로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하는 방랑자로서의 정체성”(23면)이 자기이해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해석한다. 이러한 논점은 이후 최승일의 경성방송국 취직과 동생 최승희의 입신을 위해 “세속화”(26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점, 예술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논점의 변화, 곧 1920년대의 비판적 인식이 1930년대 대중문화활동에 있어 자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 등과 연관된다.

동시에, 1930년대 최승일이 무용가 최승희와의 일화를 언급하는 주요 텍스트(「누이 승희에게 주는 편지」(『삼천리』, 1935.12) 등)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자기인식과 대중문화계 인사로서의 인식 사이에서의 갈등과 대리만

족의 구조 등을 언급하는데, 이는 이후에 보다 심화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최승일 개인의 복합적 심리를 이해하는 타자로 동생인 무용수 최승희가 있다면, 집단전기적 특성을 살피는 타자로는 김영팔을 중심으로, 이경순, 심훈, 안석영, 박영희, 안막으로 이어지는 최승일 주변의 식민지 지식인(인텔리겐치아) 네트워크의 대략적인 구도를 제시한다(30면). 이 역시 이후 최승일 기록의 공백을 메우고, 집단의식으로 규명해야 할 자리에서 다시 등장하는 화두이다. 그렇기에 1장은 최승일의 성장과 1920년대 문화활동 뿐 아니라 이 책이 최승일의 내면과 의식을 읽는 방식의 단서를 알려주는 포석처럼 읽힌다.

2장(「경성방송국 직원」)과 3장(「미디어 공간 속의 고현학자」)에서는 라디오 매체에서의 최승일의 활동과 최승일의 미디어 담론을 다룬다. ‘미디어 사회문화사의 관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책의 백미이다. 1926년 경성 체신국 무선방송소에 입사한 최승일은 라디오극연구회의 결성과 JODK의 조선어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에 종사한다. 그의 경성방송국 생활은 1926~1930년 사이, 1935~1937년 사이의 두 차례로, 이 장에서는 이중어 방송 개시 이전 경성방송국에서의 최승일의 활동과 라디오 매체사에 초점을 둔다.

2장에서는 두 정체성을 지닌 최승일이 어른거린다. 생계를 위해 입사하여 개국 준비에 불평하고, “부끄러움과 갑갑함의 감정”(167면)으로 경성방송국의 업무를 수행하는 최승일, 그리고 라디오극연구회를 결성하여 일본인 상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어 라디오 드라마의 구성에 열의를 다하는 최승일. 저자는 “최승일이 라디오극연구회를 결성하는 등 어떤 의미로든 적극성을 보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일단 식민지 사회에서 이 새로운 미디어의 가능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96면)이었으리라 보며, 1920년대 중반 JODK의 설립과 라디오 보급 과정을 설명한다. 이중어방송 이전 조선어 라디오극에 대한 분석은 특히 2장에서 중점을 둔 부분으로, 라디오극의 1기 운영(1927년)의 “창작극 중심의 예술적 실험성”

이 만 2년간의 휴면기 이후의 2기 운영(1928~1929)에서 토월회 레퍼토리를 끌어들이며 “번안극 중심의 상업성과 대중적 취향”으로 기울어졌다 논의한다.(144면) 이 장에서는 도처에서 정체성의 부딪침과 내면에 대한 탐색을 통해 최승일의 ‘다면적 정체성’을 문제삼는다.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자. 2장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최승일에게 있어 “방송 일이 그 자신에게 그렇게나 가치 없는 것이었을까? 거기엔 인민을 상대로 새로운 미디어의 계몽성과 색다른 문예형식의 가능성을 시도해보고자 한 그의 기대 또한 작용하지 않았던가?”(169면) 책은 김영팔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업의 불가피성과 내면의 진정성과의 갈등 사이에서 일본어와 조선어의 교대방송과 일본인 상사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갔던 방송국 생활을 겪었던 경험이 “계급모순 이상으로 ‘민족모순’을 더 강렬하게 자각하게끔”(173면) 이끌지 않았을까 추론한다. 동시에 JODK와 같은 조선어 방송이 식민지 권력의 ‘조선 문물 큐레이션’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한편으로 조선의 문화예술을 ‘자기식으로’ 일본에 소개하는 식민지 주체의 의지와 욕망을 자극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음을 지적한다.(176면)

3장에서는 식민지의 미디어 공간에서 활동한 1920-30년대 문사(文士) 집단에 대한 탐구로 시작한다. “최승일은 어떻게 해서 경성방송국의 직원이 되었을까?”(181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장은 특히나 질문의 방식이 흥미로운데, 개인적 동기와 구조적 조건으로 나누어 질문을 세분화하고 이를 안석영, 김영팔, 심훈과 같은 그룹의 집단전기 서술의 방식으로 확대한다. 구조적 조건의 경우, 1937년 이전까지의 고학력자의 만성적 실업률과 구직난 신문잡지를 중심으로 영화, 음반, 라디오 등의 관련 산업이 발전하던 시기의 유동적인 경계를 문사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낮은 일본어 해독률과 높은 조선인 문맹률 때문에 조선어 미디어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한다. 동시에 매스 미디어장으로서의 진입은 “다른 미디어로의 진입이나 월경이 문사 집단

에게는 일정한 상징자본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199면)였으며, “영화, 음반, 라디오 등의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던 문인들은 문단에서 주변적 위치(신진 혹은 비주류)에 있는 경우가 많았”(200면)음을 지적한다.

이어 경성을 중심으로 한 근대 미디어 공간의 확산과 생활의 감각 변화를 바탕으로 ‘대경성 고현학의 관점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의 최승일의 산문에 나타난 문화 및 미디어 담론을 다룬다. ‘속도감’과 ‘전기문화’로서의 현대 미디어 정경에 대한 감각을 기반으로, 그의 미디어 담론의 중심에는 라디오가 놓여 있다. 라디오, 영화와 같은 미디어는 1920년대 중후반 최승일의 눈에서 문화의 변혁 가능성을 내포한 ‘내용(많은 비평에서 라디오드라마를 언급하는 맥락 역시 이와 통해 보인다)을 접근이 용이한 미디어를 통해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최승일이 타진한 근대 미디어관의 핵심이다(240면). 동시에 카프 계열 지식인과 달리 모던문화의 속성을 긍정하고 이를 ‘사회의 운명’으로 소화할 것을 언급하는 부분을 확대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부분은 카프 계열의 집단적 의식과는 달리 현대문화를 바라보는 최승일의 개별성, 독특한 개방성과 유연한 태도로 해석된다.

4장 「좌파 연극인으로서」는 경성방송국 퇴사 이후 최승희무용연구소의 매니저 역할을 맡으며 카프를 매개로 벌인 프로연극 활동과 이후의 연극 기획 활동을 다룬 장이다. 미나도좌 연극부, 신흥극장 문예부, 태양극장의 연극 연출 활동으로 이어진 1930년대 중반까지의 활동 중 추적하는 것은 「지식과 ‘돈’이 있는 흥행사가 있으면」(『조선일보』, 1934.6.7.)부터 전개되는 예술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의식 변화의 축인 듯하다. 이는 상업극장에서 공연한 최초의 프로연극 <하차>(최승일 연출, 1930.9)와의 낙차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연극연출 활동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금주(金主)의 출현을 대안으로 내세웠던 최승일의 관점은 결국 “구조적 문제에 대한 영웅주의적 해결책”(286면)이었고, 이는 식민권력에 투항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었으며, 그렇기에 “프로문예의 계급적 관점을 포기하고 문화예술의 자본주의적 기업화를 지지하는 입장”(287면)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최승일의 '조선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이 시기에 증폭되던 과정의 탐구 역시 이 장의 주된 논점이다. 저자는 최승희의 조선무용, 배우자의 '쇼'에 대한 옹호나 경성방송국 재입사 후 그가 후원했던 삼담(三談)이 조선적 '순수'의 형식이라기보다 혼종적 양식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요컨대 민족적 전통을 유지하는 '순수'리는 잣대를 내세우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민족문화를 통해 식민지의 제약을 넘어 근대화세계화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293면) 일본 신험의 <춘향전> 내선공연의 진행 과정, 최승희의 일본과 세계무대로의 진출 과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국과의 교섭과 인정을 통한 조선 전통문화의 국제화라는 지향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는 “제국에 무해한 식민지 민족주의”(325면)라는 관념에 기대고 있었는데, 이와는 별개로 문화사적으로 <춘향전>을 둘러싼 각종 논쟁에서는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일본문화와의 차이, 차이를 기반으로 한 '조선적인 것'에 대한 자각이 일게 되었다 지적하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5장의 「...:친일파 영화제작자로」에서는 4장의 조선문화의 국제화, “비정치적인 문화 민족주의”(324면)에 대한 최승일의 생각 및 각종 연극무용 기획 활동과의 낙차를 통해 최승일의 변화를 보여준다. 5장은 동아흥업사의 설립(1939년)과 영화 <지원병>(1941)의 제작, 흥행 과정에 주목하는데, “비정치적 문화 민족주의”의 관념을 벗은 상태에서 최승일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해지는 장이기도 하다. <지원병>의 제작 과정은 제국의 '지원'뿐 아니라 군부의 개입과 검열로 난항을 겪었고, 개봉 연기와 일본 영화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으며 일본 내지 영화계의 일종의 '관용'에 의해 개봉될 수 있었다(354면). 국책영화로서도 선동성이 부족한 '감격이 없는 시극물'로서 <지원병>은 비평과 흥행에서 실패하게 된다. 이 책은 이러한 실패 요인으로 개봉 당시 경쟁작과의 관계뿐 아니라, 안석영, 박영희, 최승일이 지닌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카프 맹원이었던 이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언급한다.(366면) 이러한 분석은 명확한 한계선을 긋고 있는데, 이들의 '거리감'이 친일 행위가 강압에



의한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설명하는 방식은 될 수 없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지원병> 이후 최승일은 이렇다 할 독자적인 활동을 보이지 못하였고, 북으로 건너가 1957년 극예술협회 참여부터 신흥극장 활동기까지의 회고를 남긴 후 1966년 3월 24일 타계한다.

5장에서 언급한 '심리적 저항산'의 문제는 일제 말기 카프 계열 국민연극에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적 징후로, 짧은 서술이나 개인적으로 균형감과 분석 면에서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때마다 나는 문사들이 일제 말기의 국책협력 이후 좌절된 인정욕구가 내면의 어디에서 충족되는 것인가 궁금하였다. 1940년 최승일의 서양음식 탐닉에 대한 에피소드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리하여 반가웠다. "그의 '서구 취향'은 혹시 최승희를 통해 결코 완전히 대리충족될 수 없었을, 영화를 매개로 한 '세계 진출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었을까? 어쩌면 그것은 지식인이자 문화예술인으로서 끊임없이 좌절된 인정 욕망에 대한 작은 자기 위안이었는지도 모른다."(386면)

### 3. 일제강점기 문화사 연구와 작가론의 향방

글의 서두로 돌아가, 작가론과 '팔방미인'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라디오 연극 키네마』는 '팔방미인'을 둘러싼 전통적인 문학연구 또는 작가연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작가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그에게 매우 중요했으며, 그 성과와 흔적 또한 적지만 뚜렷하다. 그런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문화예술의 여러 영역에서 최승일이 구축한 **다면적 정체성**을 비가시화하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여겨진다. 프로이트의 차폐 기억 개념을 비틀어, 우리는 '작가가 최승일에 대한 사후의 논의에서 일종의 **차폐 정체성**(screen-identity)으로 기능해왔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

다.”(9면, 인용자 강조) ‘차폐 정치성’은 최승일의 사후 그의 삶에 접근하는 해석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겠지만, 기실 문화계 전반에 종사했던 문제적 개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활동을 해석해 내는 과정에서도 ‘다면성과 ‘차폐’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책에서는 다면적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소 시기가 겹치더라도 장마다 주요한 미디어 활동의 논점을 설정하면서도, 이전 시기 활동과의 낙차나 연결, 자기해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 세밀함을 보인다. 이러한 구성은 생애사와 결합한 일제강점기 문화사의 서술의 좋은 본이 된다.

아울러 이 책을 특별하게 하는 요인은 **‘생애사의 탐색과 질문의 방식’**이다. 이 책은 ‘작가론’의 구성이 아닌 생애사 연구(life history research)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생애사 연구는 개인이 남긴 자서전과 회고, 각종 문헌·기록자료, 당대 사회문화사적 배경, 필요와 가능 여부에 따라 면담연구 자료와 구술연구자료 등을 아우르면서, 에고다큐먼트(ego-document)의 해석과 교차검증을 중심으로 대상의 개별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생애사 연구의 방식은 작가 연구 방법론과 어느 정도 중첩되어 있는 것이지만, 집단적 정체성이 개별적 정체성만큼이나 중요한 해석의 요소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작품의 생산과정과 해석, ‘작가적 특수성’의 변별에 초점을 두는 경향과는 차이가 있다. 이 책에서 이러한 논점의 차이는 주로 확장을 위한 질문의 차이에서 변별된다.

질문의 차이에 강조점을 두고 싶다. 예술인 관련 생애사 구술채록 작업을 해 오면서 종종 방송 관련자들의 구술면담 자료를 들춰볼 필요가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나는 언론학자·사회학자들의 질문 방식에 흥미가 생겼다. 전통적인 문학·예술학 연구를 바탕으로 성장한 구술연구자들이 예술작품의 생산과 내용의 재구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사회학계에서 생산된 구술채록문에서는 체제의 작동방식과 의사결정, 인적 네트워크 등 구조와 집단 안에서의 개인의 의식과 규범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이 엿보였다. 이 책에서 “문사들은 어떻게 식민지 미디어장에 진입할 수 있

있을까'와 같은 질문에서 그러한 문제의식이 엿보인다. 이러한 질문은 생애사와 결합한 문화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특히 유용하리라.

이 책은 최승일의 생애사를 골조로 '미디어 사회문화사와 '식민지 인텔리겐치아 전가의 방식을 통해 최승일의 시대를 조망한다. 최승일은 이 책에서 좌파 지식인으로 출발하여 라디오, 연극, 영화계의 '매개자와 '기획자로 활동하였고 일제말기 친일 영화 제작자가 된 한 개인의 생애사 이상의 의미를 획득한다. 두 가지의 역학, 곧 당대 미디어장의 역학과 식민지 인텔리겐치아의 집단적 행동규범, 인식 속에서 최승일의 생애는 입체적으로 해석되며, 그 안에서 개인의 특수한 경험과 인식이 반영된 독특한 담론의 구조, 요컨대 '지배담론'에 복무하지 않는 최승일의 생각 역시 부각된다. 이 책은 인간의 삶이 보편적이면서 개별적이라는 것, 정체성의 다면적 면모는 해석해야 하는 중요한 징후라는 것을 이론이 아닌 생애사와 결합한 문화사 서술의 실천을 통해 보여준다. 역작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 문화사 연구에서 이 자극을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